

# ‘배움의 뜻’ 있는 곳에 장학금 있다

금강대, 동국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등 교계 고등교육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얼마나 될까?

인지도가 부족한 금강대와 위덕대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에 따라 수능성적 우수자 뿐 아니라 학생부 성적 우수 학생까지도 별도의 장학혜택을 준다.

금강대는 신입생 전원의 1년간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해주는가 하면 등록금 혜택 외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더해주는 것 또한 특징이다. 동국대는 해외탐방장학선발자에 대해 학비와 체제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해외탐방장학을, 위덕대는 토의성적 우수자가 해외 자매대학 유학시 체제경비를 지원하는 세계화장학 제도를 두어 글로벌화된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교에 따라 설립종단의 승려에 대해 일괄적으로 장학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승려 학인의 소입에 따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고 위덕대는 스승자녀장학이라 하여 진강종 스승 자녀에게 별도의 혜택을 준다. 재가학생은 군중법사후보생, 불교지도자육성장학, 불교미술장학 등 전공과 진로에 따른 장학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동국대는 건학 100주년의 사학답게 장학제도도 풍성하다. 최근에는 기업의 인센티브 제를 적용한 강화별 우수장학제도를 도입하여 매 강좌 담당교수에 의해 선정된 학생에게 20만원씩을 별도 지급한다.

교계 단체의 장학금은 특정대학의 장학기금과 제공되는 외부장학을 기준으로 20곳 정도가 있다. 일생을 <법화경>연구에 매진했던 고 미산 홍정식 박사의 유훈에 따른 미산장학금과 탄허불교재단의 보문장학금은 동국대



▶ 사람이 희망이다

## 장학금으로 보는 인재양성 현황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금전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은 여전히 많다. 각종 '장학금'은 이 같은 학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불교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50여 곳이 넘는다. 장학수혜자가 지역에 국한돼 있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활동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립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장학지원과 교계에서 활발하게 장학사업을 펼치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교계 50여개 단체 장학사업 실시

#### 東大 해외탐방 지원 등 혜택 풍성

불교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은정장학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법정대 스님이 설립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지급한다. 청호장학은 불교 공익사업의 수행과 불교사상의 연구보급을 통한 불교복지 사회 건립을 위해 설립된 청호불교문화원(회

장 이종대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된다.

성찬회장학은 탄허·만화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인 조계종성찬회(이사장 현해)에서 지급한다. 대한불교화엄종에서 종단의 재원을 출연하여 만든 화엄종장학회는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 뿐 아니라 서울대 등 타대학 우수인재, 지역 중·고교생에게도 지급한다.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과 학인스님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몇몇 스님과 후원단체의

뜻을 모아 발족한 두산장학회는 매년 15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리는선우(이 사장 상태웅)는 미래의 사회지도자, 불교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고교생, 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 및 추천에 의해 100~150만원씩 향산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인의 고액 회사에 의한 대표적인 장학은 얼마 전 평생 바느질상으로 모은 30억 상당의 재산을 동국대에 회사하여 설립한 백련심장학이 있다.

장학 목적이 아닌 교계 단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는 불교환경연대의 불교환경장학금과 불교여성개발원의 불자여성인력장학금을 들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뜻 생명이 평화롭게 상생하는 청정세상을 가꾸어 갈 불교환경연대" 선발을 위해 대학생, 대학원생,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불교환경장학금을 지급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의 불자여성인력장학금은 불교여성역할과 지위 향상 연구자를 대상으로 금년 기준으로 연구자 1인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다.

기성세대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는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의 불교소장학자 연구 및 번역 지원사업과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의 행원문화상이 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우수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학 관련 번역 지원 △외국인 연구자 학위 논문 지원 등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원문화재단은 매년 불교사상을 토대로 문학이나 예술, 불경 번역에 앞장선 불자들을 선정해 '역경상' '문학상' '예술상'을 시상하여 불교문화의 고양과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인스님과 불교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과 연구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교계 단체

종류	지급처	구분	금액	자격	
중앙승가대		특 등급	100~120만원	수석입학 및 학년수석	
		갑 등급	85만원	학과수석	
		을 등급	66만원	학과차석 및 소입자	
		병 등급	50만원	학년서기	
금강대학교		신입생장학	1년간 등록금 및 기숙사비 면제	신입생	
		전교수석입학자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면제)+20만	수석입학자	
		수능성적우수장학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면제)+15만	수능성적22개지역 1등수자	
		학부수석장학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면제)+15만	학부수석입학생	
		학업최우수장학	등록금 면제+20만	전공수석자	
		금강리더십장학	등록금전액 70%-전액 면제	별도선발 기준	
		공로장학	20~30만원	학생회 및 학교부속기관 활동자	
위덕대학교		지역인재육성장학	입학금 면제	2008학년도 입학등록자 전원	
		학생부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30%-전액	학생부 우수자	
		수능성적우수자	4년간 등록금 30%-전액	수능우수자	
		세계화장학	자매대학 체제경비 지원	TOEIC 성적 우수자	
		종단스승장학	등록금 70%	진강종 스승	
		불교성직자장학	등록금 50%	문광부 소속 교계 승려	
		봉사장학	입학등록금	학생회 활동자	
		종비장학	등록금 전액 및 소요경비	진강종 종비생	
		스승자녀장학	등록금 전액등록금	진강종 스승 자녀	
		각인, 대덕관장장학	등록금 일액	불교학부종 성직 우수자	
동국대학교		전공수석	등록금 70%	전공수석자	
		우수장학	등록금 30%	성적우수자	
		복자장학	등록금 30%	가정행림관란자	
		총장장학	등록금 일부-전액200만원	학생회 활동자	
		강화별장학	20만원	강화별 수석자	
		해외탐방장학	학비+체제비보조	해외탐방장학 선발자	
		종단추천	등록금 70%	조계종 재학생	
		종합학교 장학	등록금 70%	종합학교 출신자	
		군중법사후보생	등록금 70%	군중법사후보생	
		불교지도자육성장학	등록금 전액	입학우수자	
		불교미술 장학	등록금 30%	불교미술 전공자 우수자	
		백성원 장학	70만원	비구스님 총무	
		해방 장학	70만원	비구스님 총무	
기원학사 장학	70만원	기원학사 사생장			
동국대학교대학원	간학이념구현장학	등록금 60%	조계종 재학생		
장학기금		탄허문화재단	보문장학	60만원	불교대 재학생 중 추천자
		고종실교수유족	미산장학	70만원	불교대 재학생 중 추천자
		대한불교진흥원	예경	예경	불교대 50% / 타대학 50% 선발
		백련심 장학	백련심 장학	200만원	가정행림 및 불교성행활동 위주
		두산장학회	두산장학	등록금 전액	불교대 스님 1인
		홍경희 장학	홍경희 장학	200만원	불교성행활동 위주 3인
의부장학		조계종총무원	조계종총무원장 장학	200만원	서울 30명/경주 20명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은정장학	200~300만원	불교대 재학생 중 추천자
		청호불교문화원	청호불교문화장학	4년간 전액	법안선발
		백련심장학재단	백련심 장학	종단지원 외 30% 추가지급	조계종 학인 스님
장학회		조계종성찬회	성찬회 장학	등록금 전액	매학기 10여명
		화엄종	화엄장학	100만원	불교대, 대학원생 및 일반 대학생
기타		정진장학회	정진장학	200만원(1200만원)	서울대, 경희대 등 가정행림관란자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	역경상/문학상/예술상 등 3부문	신형훈 추천
		우리는 선우	향산장학	100~150만원	고교생, 대학, 대학원생
		불교환경연대	환경장학금	연구금500만 / 학부생, 단체 100만	환경 관련 학부생 및 연구자, 단체
불교여성개발원	불자여성인력장학금	2000만원	불자여성 연구원 1인		

## 인재발사 '인식' 보다 '실천' 이 중요

### 장학단체 양적팽창 치우쳐...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

통계청에서 지난 7월 발표한 '2005 대한민국 종교별 인구 자료'에 따르면 불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3.9%(40만명)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카톨릭의 74.4%(220만명) 증가와 비교했을 때 참담하리만치 암울한 성적을 보면 포교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둘러보면 지난 과반세기 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계의 포교사업은 법당 불사 등 양적팽창에만 치중해왔다. 장학사업을 진행 중인 수많은 단체와 후원자는 남들보다 먼저 인재발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나선 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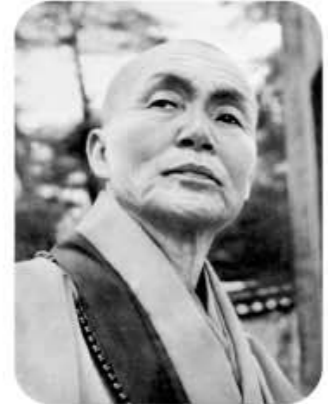
행원문화재단의 주영운 이사장은 "불사라 하면 흔히들 대웅전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대웅전 불사만큼 중요한 불사는 불교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공감한 곳은 행원문화재단 이외에도 대한불교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975년 동국제강그룹 창업주 장경호 거사의 원력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에도 교계 곳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근래 (주)만다무역(대표 이태호) 등 불자기업의 장학사업 추진이 활발한 것은 매우 고

무적이다. 이태호 대표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독려하는 인재발사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한다.

인재발사는 학인스님을 비롯한 불교학 전공자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인식에서 조계종총무원에서 지급되는 총무원장 장학은 불교대학에 한정해 지급하던 현재는 전공에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 인력풀을 운용할 계획이라 한다. 이외에도 향산장학, 화엄장학 등 전공을 불문하고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는 많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짧은 기간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시일이 지나면 두둑하고 그 혜택을 본다. 이제는 공사기간 수년 안팎의 건축 불사보다는 백련지대계의 인재발사에 앞장 설 때이다. **조동섭 기자**



<중창조 청담대중사>

귀의삼보하옵고  
 불법과 천문, 지리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한 도선 국사가 명산 승지를 두루 답사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청수한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도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삼각산 도선사는 역사화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면 많은 큰스님들이 도량을 외호하시어 수도 서울의 대표적 참회 및 관음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선사는 개산조 도선국사의 개산의 고매한 뜻을 잇고자 개산대제 및 청담문화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지 선묵 혜자 합장**

일시 : 11월 3일(음력 9월 24일) 토요일

### 주요 행사 일정

- 1부 : 다례제 (오전 10시)
  - 2부 : 산사음악회 (오후 2시)
- 사 회 - 머루다래  
 가 수 - 현철, 장미화, 한영주, 이습성악가 - 박정희 (경희대 음대교수)  
 합 창 - 실달학원 합창단



<개산조 도선국사 진영>